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

2017년 11월 3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월3일(금) 오전 6시 보도가능)

배포일시	2017. 11. 2.(목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
담당과장	서가람 과장(044-203-4430)	담 당 자	김열규 사무관(044-203-4456) 윤도경 사무관(044-203-4407)

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 혁신 본격화

- 이인호 산업부차관, 창원국가산단 「융·복합 집적지」 출범행사 참석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'17.11.3(금) 창원국가산단에서 유관기관 및 산·학·연 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 산학융합지구 개교를 겸한 **창원국가산단 융·복합 집적지 출범 기념행사**를 개최했다.

< 행 사 개 요 >

◆**일시/장소:** '17.11.3(금) 11:10~13:10 / 경남 창원국가산단 행사장 등

◆**참석자**: (정부) 이인호 산업부 차관, (지자체)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,
(유관기관) 황규연 산업단지공단 이사장, 정재훈 산업기술진흥원 원장,
(대학) 이상경 경상대 총장 등, (산업계) 기업대표 등 약 250여명

◆**주요내용**: 창원산학융합지구 개교, 창원 융·복합 집적지 출범행사 개최 등

□ **"융·복합 집적지"**는 **산업·교육·문화·복지 등 다양한 시설을 산업단지 내에 집적**시킨 미래지향적 공간으로, 산업시설 중심의 산업단지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**산업단지 혁신의 표준**이다.

□ **산업단지**는 지난 50여 년간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나, 입주기업 혁신역량 미흡,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**활력이 저하**되고 있다.

○ 이에 정부는 노후화한 산업단지를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곳,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**여러 산업단지 혁신 정책을 추진**해 왔으며, 그 일환으로 **창원국가산업단지에 융복합 집적지 조성이 가시화**함에 따라 이 행사가 마련됐다.

□ **“창원 융·복합 집적지(Smart-up Park)”**에는 전국 산단 중 최초로 산학융합지구(대학캠퍼스, 기업연구관), 스마트혁신센터(시험·인증기관 등 기업지원시설), 지식산업센터, 문화·복지시설이 한 구역(37천㎡)에 집적되어 있다.

① **산학융합지구**('17.8월 준공)는 경상대·경남대·마산대 등 경남지역 3개 대학의 기계 관련 6개 학과와 40여개의 기업연구소를 창원국가산업단지 내로 이전시켜, ❶현장 맞춤형 인력양성❷산학공동 연구개발(R&D)❸취업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등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구이다.

② **스마트혁신센터**('18.5월 준공예정)는 화학융합시험연구원, 산업기술시험연구원 등 국내 시험·인증기관의 분원을 유치하여 기업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곳이다.

③ **지식산업센터**('19.9월 준공예정)는 창원국가산단에 부족한 정보기술(IT)·지식산업 등을 영위하는 첨단기업들을 적극 유치, 기계 산업 등 기존 제조업과의 융·복합을 통해 업종 고도화, 신산업 창출 등을 유도하기 위한 곳이다.

④ 또한, 기존 산단에서 부족했던 **문화·복지시설**(근로자 복지타운(복지관, 어린이집 등), 창원드림타운(근로자용 오피스텔), 복합문화센터(문화 컨벤션·교육시설 등))을 설치하여 젊은 인재와 여성들의 근로·정주여건을 개선하였다.

□ 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**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기념사**를 통해,

○ **“창원 융·복합 집적지”**는 **기존 산업단지를**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**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출발점**이고 앞으로 **산업단지 혁신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**으로 평가하며,

○ 앞으로도 **산학융합지구와 산·학·연 협의체 지원을 확대**하는 등 **산업단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**해나갈 것을 약속했다.

* 산학융합지구(산단 내로 대학캠퍼스·기업연구관을 유치하여 산학공동 R&D,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등 추진)를 '22년까지 15개로 확대('17년 7개)
* 산학연 협의체(산단 내 기업, 대학,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R&D과제 발굴·수행·사업화를 추진, Mini-Cluster)를 '18년까지 100개로 확대('17년 92개)

□ 기념식 행사에 이어 **이인호 산업부차관**은 산·학·연 관계자와 **오찬간담회에 참석**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.

【참고 1】 창원국가산단 융·복합 집적지 조성사업 현황
【참고 2】 창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열규 사무관(☎ 044-203-4456) 또는 윤도경 사무관(☎ 044-203-440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**창원 융·복합 집적지 조성사업**

□ 융·복합 집적지 개념

○ 산업·교육·문화·복지 등 다양한 시설이 한 곳에 집적된 공간으로서,

- 제조 중심의 산업단지를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재편하여 산단을 신산업 창출 등 혁신성장의 핵심으로 거점화하는 것이 목적

□ 융·복합 집적지 조성방향

❶ 제조업 중심 → 지식·ICT산업 유치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, 첨단화

○ 지식산업센터(다층형 집합건축물 지식산업·ICT산업에 입주공간 제공), 혁신지원센터(시험·인증기관 등 기업지원기관 입주)를 설립

☞ **(창원국가산단)** 지식산업센터(291실/908억, '19.9월 준공예정), 혁신지원센터(24개 기관/109억, '18.5월 준공예정) 설립 중

❷ 생산활동 중심 → R&D, 인력양성 등 혁신활동 기반 마련

○ 산학융합지구 조성(산단에 대학·기업연구소를 유치해 산학공동 R&D, 현장형 인력공급), 산학연 협의체 지원(산학연 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 R&D 지원) 추진

☞ **(창원국가산단)** 산학융합지구 조성 완료(412억, '17.8월 준공), 산학연 협의체 지원 중(7개 협의체, '17년 52억)

❸ 제조시설 중심 → 문화·복지·주거시설 등 근로자 지원시설 설치

○ 어린이집, 근로자 기숙사용 오피스텔, 복합문화센터 등을 집중 설치

☞ **(창원국가산단)** 근로자 복지타운(어린이집·체육시설 등/99억, '17.7월 준공)·오피스텔 준공 완료(420실/428억, '17.8월 준공), 복합문화센터 추진 예정

< 창원산단의 융복합 집적지 조성도 >



참고 2 창원 산학융합지구 조성 개요

◇ (**목적**)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유치하여 "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- 공동 R&D+기술애로 해소-고용"을 연계되는 산·학 융합을 촉진

◇ (**주관/장소**) (사)창원산학융합본부/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40-11(산단공 물류부지)

◇ (**사업비/기간**) 412억원 (**국비 120**, 지방비 70, 산단공 97, 민간 125)/ '14.12 ~ '17.9월

◇ (**이전학과**) 경상대·경남대·마산대 등 3개 대학, 3개 학과, 3개 대학원 등 총 **335명의 학생**(대학원생 88명)과 **전임교원 23명 등**이 이전

구 분		계	경상대	경남대	마산대(전)
이전 대상	학과	3개 학과	기계융합공학과	기계공학부 (3 ~ 4년)	융합전자과 (1 ~ 2년)
	대학원	3개 대학원	기계융합공학과, 기계항공공학부	기계공학부	-
	학생	총 335명	학부 120/ 대학원 81	학부 60/ 대학원 7	학부 67
	교원	전임 23명	전임 12명	전임 6명	전임 5명

◇ (**조성내용**) 산·학 캠퍼스관(지하1층, 지상 8층)/ 기업 연구관(지하1, 지상 7층)

< 조감도 >



< 대학 캠퍼스관 >



< 기업연구관 >

